19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유권자 1인 7표 행사

오늘까지 후보 등록…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

후보자 기호는 의석 수 많은 순
민주당 1번·국힘 2번·정의당 3번
교육감 선거 이름 확인 후 기표해야

6·1지방선거 출마자들은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끝낸 뒤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각 정당의 경선을 거쳐 공천이 확정된 각 당의 후보들은 후보 등록 이후 선대위 출범식과 선대위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본선 경쟁 채비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부여된다. 정권이 교체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고,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의석 수로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을 받게 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1인 7표를 행사하게 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오는 19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세나 연설, 대담 등을 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선대위 체제를 구축하고, 지지층 결집과 정책 공약 등을 최종 정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달 수 있는 현수막의 수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 가운데서는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관위 추첨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은 2번, 정의당은 3번을 받게 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당에만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3개 정당만 1~3번을 쓸 수 있다. 즉, 이들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1~3번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한다.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특정 기초의원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내면 1-가, 1-나 라는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2-가, 2-나 기호를 쓰게 된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의 경우 별도 기호 표시는 없다.

◇유권자, 1인 7표 행사=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1인 7표를 행사하게 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만 투표하면 된다. 지역 유권자들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용지다.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되며,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다. 우선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이를 넣고, 지역구 시·도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푸대접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인터뷰

"취임식 포인트 국정철학 전달
첫 발걸음 잘 뗀 것 같아 보람"

"지난 10일 거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무난하게 잘 치러졌고, 이날 취임식과 취임사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진두지휘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첫 발걸음을 잘 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마무리됐다. 소회가 있다면.

▲대통령 취임 행사는 법령에 의한 최고의 행사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끝나 감사한 마음이다. 윤 대통령도 직접 전화해서 취임식과 취임사가 잘 됐다고 치하했다.

-취임사에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도 취임식 이후 언급했지만 통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민 통합 없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는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자유'도 결국 국민 통합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취임식에서 가장 어려웠고 중점을 둔 포인트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국회 정문에서 걸어서 입장하고 스토리가 있는 20명의 국민 대표와 함께 연단에 오르는 등 기존의 취임식에 없는 많은 변화를 줬다.

용산 집무실 이전의 가치를 취임사에 녹여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지만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차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에서 광주·전남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 두 명에게 합류 여부를 타진했으나 '밖에서 돕겠다'며 거절했다고 나에게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화해와 통합의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솔직하고 정직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푸대접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앞으로의 거취는.

▲임무를 마쳤으니 자연으로 돌아간다. 윤 정부의 성공에 내 역할이 필요하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밀알이 되겠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 열겠다"

강기정 본선 선대위 출정식
2대 전략 '듣는다'·'됩니다'

12일 후보 등록을 마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들어갔다.

강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강추캠프에서 출정식을 열고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동 선대상임위원장은 송갑석·윤영덕·이병훈·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과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맡는다. 강 후보 선대위는 이번 선거에 '듣는다 본부'와 '됩니다 본부' 가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듣는다' 본부장은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됩니다' 본부장은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맡는다.

'듣는다 본부'는 후보와 시민이 함께하는 유세 '마이크를 드립니다'와 같은 새로운 컨셉의 선거운동을 펼친다.

선거 후보자의 일방 소통에서 벗어나 유권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됩니다 본부'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된 공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선대위는 정책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한 '5개 자치구 찾아가는 정책 소풍'도 진행한다. 5개 자치구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선거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기정 후보는 "시민의 진짜 바람을 담은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청을 통해 숙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선거를 치르겠다"며 "이같은 축적의 과정을 통해 당당하고 빠르게 광주를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